

독일사에서 읽는 한국교회 오phan에서 속죄로 돌아서라

추태화

연재 순서

- 1회: I. 파장의 중심, 한국 교회,
II. 비판의 대상이 된 독일 교회
- 2회: III. 역사 왜곡에 앞장 서다,
IV. 분단을 저지할 수 있었다
- 3회: V. 통일로 속죄하다,
VI.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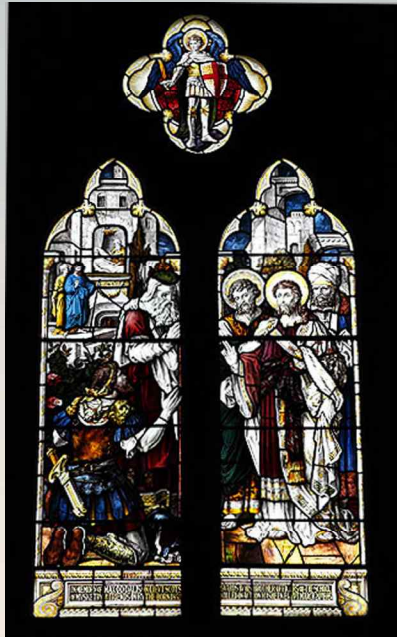
선교 120주년을 넘어서는 성숙한 나이의 한국 교회, 하지만 미디어에 비치는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성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분단과 통일이라는 면에서 자주 비교되어왔던 독일. 그들의 역사에서 교회는 어떠한지 독일사에서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파장의 중심, 한국 교회

현재 미디어에 비친 한국 교회, 기독교를 생각하면 어떤 말을 해야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 지난 시간 동안, 아니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오르 내리는 모습을 살펴보면 과연 한국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던 교회인지, 성경적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물론 세간의 비난을 불러온 교회는 전체 한국 교회수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교회는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신앙공동체라는 점 때문에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곧바로 교회에 관해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 18). 현대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잃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미디어에 비치는 몇몇 한국 교회의 모습에 할 말을 잊게된다. 상처난 우리 교회에 대하여 회개와 통곡 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한국 교회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기총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손봉호 교수는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여 펜을 든 여러 저자들은 현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상성 목사는 『추락하는 한국 교회, 교회의 미래는 한국의 미래다』에서 한국 교회는 ‘문제덩어리 종합선물세트’라고 지목하면서 한국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추락한다’고 지적한다. 황규학 목사는 『한국 교



회, 상식이 운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국 기독교 안에 최소한의 상식도 사라진 듯하다고 개탄한다. 김두식 교수는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방향을 거꾸로 잡지 않았는가고 의문을 제시한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의 백종국 교수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제 한국교회도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잠시 잠깐 본질을 잊고 외도한 경우를 보이기도 했다. 이 지면에서는 그 한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교회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려 한다.

교회의 오판이 얼마나 가공할만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과오를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처절한 반성과 회복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아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대사 속에서 독일 교회가 걸어온 길을 몇 단계로 구분해보자:

- 1) 19세기 중엽 독일 개신교는 현재 한국 교회처럼 사회적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 2) 20세기 초반까지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 3) 1930년대 나치 이데올로기와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교회는 그들에게 동조하고 말았다.
- 4) 교회의 오판과 실책으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도록 방관 내지는 협력했고,
- 5) 1945년 연합군에 의해 패전하게 되므로 독일은 동, 서독으로 분단되는 비극을 맞았다.
- 6)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되는 분단 상황에서도 서독 교회는 꾸준히 동독 교회를 지원하므로 통일의 기

반을 닦았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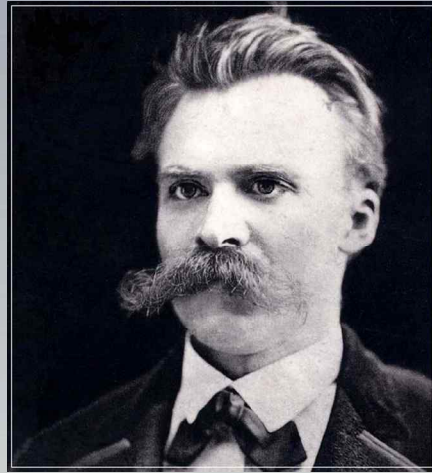
7) 1989년 마침내 동독 교회는 평화기도회를 십 수년 간 지속해온 결과 사회주의 정권을 해체하는데 기여했고, 1990년 독일 통일에 동, 서독 교회는 지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비판의 대상이 된 독일 교회

1850년대 독일 교회는 현대 한국 교회처럼 비판의 중심에 서 있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지 340년 가깝도록 성장해온 독일 교회는 당시 세간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교회의 우산 아래있던 사제, 교역자들은 종교 귀족이 되어 시민들 위에 군림했고, 예배와 성례를 주도하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윤리적으로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다른 이들에게 도덕을 강조하였고, 자신의 배는 포만에도 가득차면서도 시민들의 궁핍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세 시대가 다시 도래한 듯한 형상이었다.

이런 독일 교회에 포문을 여는데 앞장선 사람은 니체(Nietzsche)였다. 그는 문학교수, 철학자, 저술가, 자유사상가 등의 직함을 가지고 왕성한 집필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기독교를 조준했다. 니체는 유럽 문명비판을 통하여 기독교가 어떤 위상에 처해있는지 신랄하게 지적해 나갔다. 『비극의 탄생』은 그의 문명비판을 형상화한 처녀작으로 아폴로와 디오니소스 정신을 비교하면서 합리성을 내세운 아폴로의 승리가 서구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계열의 이성주의가 자유로운 서구 정신을 오염시킨 주범이라고 부르짖는 니체는 결국 기독교도 그 계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전작의 기록보다 한층 더 격렬한 목소리는 『짜라



프리드리히 니체, 1844~1900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는 산에서 오랜 수행을 마치고 내려온 짜라 투스트라의 깨달음을 통하여 이렇게 외친다. “인간은 초극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할 인간의 순진무구한 행동을 저지하는 종교이며, 노예의 도덕이 되어갔다고 비판한다. 그는 나아가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절규했다.

니체의 독설이 우리 시대에 재연된다면 아마도 안티기독교 그룹이 만들어낸 ‘개독교’라는 단어와 유사하지 않을까. 심한 두통과 질병으로 안주하지 못하고 알프스 산간의 요양지를 방황하던 고독한 철학자는 유럽 문명비판의 종결자로 나선다. 그는 이렇게 당시 독일 기독교를 판단했다.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기독교는 유죄다.”



추태화 독어독문학 박사이며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학과장이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문화분과 분과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문화의 미로에서 길을 찾다』, 『태초에 문화가 있었느니라』,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 화학』 등이 있다.